



몇몇 선수들의 승부조작과 불법 스포츠도박 때문에 말이 많지만 경륜과 경정은 지난해 무려 4169억원의 세금을 내고 898억원의 수익금을 각종 공익사업에 쓰는 등 좋은 일을 해왔다. 팬들의 합법적인 베팅은 국가재정에도 큰 도움이 된다.

경륜·경정 세금만 4169억...사회로 흐르는 베팅사업

합법적 베팅사업 수익금은 어디로?

작년 수익금 898억도 공익사업에
토토·카지노 등 수익금 사회환원

요즘 몇몇 프로야구 선수들이 승부조작에 가담하고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설문제가 또 불거졌다. 불법도박의 문제가 하루 이틀 전의 문제는 아니지만 다시 주요 이슈가 됐다.

국내 불법도박 시장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014년 기준으로 101~160조원 규모의 불법도박 시장이 우리나라에 존재한다고 추산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복지

예산 규모는 115조원이었다. 불법도박의 시장 규모가 이를 훌쩍 뛰어넘는다.

2011년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김제 마늘밭 100억원 매장사건은 불법도박의 수익금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해프닝이었다. 이처럼 국소수의 배를 채워주는 불법도박의 수익금은 사회에 환원되지 않는다. 그래서 불법도박을 근절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합법적인 베팅사업의 수입금은 어디에 쓰일까?

지나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창섭) 경륜경정사업본부가 경륜과 경정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은 898억원이었다. 세금은 무려 4169억원이었다. 경륜경정사업본부는 수익금 898억원을 가지고 ▲국민체육진흥기

금 392억원 ▲문화예술진흥기금 207억원 ▲청소년육성기금 164억원 ▲지방재정지원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 등에 135억원을 각각 배분했다.

이처럼 경륜·경정의 수익금은 국가체육발전, 문화예술진흥, 청소년육성, 지방재정지원 등 국가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사용된다. 이것만이 아니다. 사회에 환원한 수익금 898억원과는 별개로 2015년 세금으로 4169억원을 부담했다. 레저세가 2508억원으로 가장 많고, 교육세 1003억원, 농특세 501억원, 기타 소득세 157억원이었다.

경륜경정 팬들의 소액 베팅이 국가재정을 살피우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경륜과 경정에서 벌어들이는 수

익금은 세금과 각종 공익기금으로 전액 배분돼 대부분 사회에 환원되어 국민들을 위해 사용된다. 스포츠도토, 경마, 카지노 등 다른 합법 베팅사업의 경우도 배분내용에 차이가 있을 뿐 수익금 전액이 사회에 환원되고 있다.

이런 좋은 목적의 합법적인 도박시장을 두고 왜 사람들이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불법도박 시장을 기웃거리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합법사행산업의 과도한 규제', '불법도박 운영자들의 실효성 있는 적발시스템 부재' 등을 들고 있다. 선량한 국민들이 더 이상 범죄자가 되지 않게 하려면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 도박시장 근절을 위한 더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

김종건 기자 marco@donga.com

김종민 vs 어선규 “경정 첫 400승은 나의 것”

꾸준한 김종민 378승 개인 최다승
상승세 어선규 12년 만에 303승

프로야구 KBO리그 최다승은 한화의 은퇴선수 송진우가 기록한 210승이다. 메이저리그 최다승은 사이영의 511승. 일본 프로야구는 가네다 마사이치(한국이름 김정일)의 400승이다.

모든 스포츠가 그렇듯 역사가 깊어질수록 각종 통산 기록이 쌓여간다.

2002년 개장한 경정도 14년의 세월동안 많은 기록을 만들어왔다. 경정도 400승을 눈앞에 두고 있다. 유력한 400승 후보는 2기 김종민(39)이다. 현재 378승으로 개인 최다승이다.

2010년 40승, 2012년 35승으로 시즌 다승왕을 차지했던 김종민은 신인시절부터 강자들과 거침없는 1년 경합 속에서도 특유의 힘이 넘치는 선회력으로 꾸준한 성적을 기록했다.

김종민은 선수생활 14년 동안 해마다



김종민



어선규

평균 27승을 기록했다. 지난 시즌에는 잣은 플라잉(출발위반)으로 많은 경주에 출전하지 못했지만 현재 가장 많은 승수와 대상경주 우승경력을 보유한 만큼 경정 최초의 400승에 가장 근접한 선수다. 전문가들도 “플라잉만 조심해서 꾸준히하게

출전한다면 선수생활 중 가장 먼저 500승도 가능하다”고 내다본다.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처럼 김종민을 바짝 추격하는 선수는 김현태(365승), 권명호(348승)다. 이보다 조금 승수는 차이가 나지만 가장 무서운 거북이는 4기 어선규(38)다.

현재 303승으로 300승 이상을 선수 10명 가운데 9위지만 기세가 무섭다. 2005년 1승을 기록한 이후 매시즌 꾸준히 15승 이상을 기록하면서 선수생활 12년 만에 303승을 기록했다. 2014년에는 39승을 기록하며 다승왕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그랑프리 우승까지 차지해 고객에게 신뢰받는 선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 시즌 교체된 신형모터에 적응이 더딘 모습이지만 현재 17승으로 다승 공동 2위다. 전문가들은 “어선규가 경정 최초 400승 달성 경쟁에는 뒤처져 있지만 꾸준한 성적으로 개인통산 최다승기록 달성이 유력하다”고 했다.

현재 경정 선수로 등록된 인원은 총 146명. 이 가운데 통산 300승 이상을 기록한 ‘300클럽’ 멤버는 전체 선수의 6.8%인 10명뿐이다. 1기 김현태(365승), 권명호(348승), 박현성(337승), 정민수(319승), 정용진(310승), 이응석(302승), 2기 김종민(378승), 이재학(317승), 김효년(307승), 4기 어선규(303승)가 300승 이상을 달성했다.

김종건 기자

강원도 화천서 5~6일 이사장배 용선대회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창섭) 경륜경정사업본부는 5~6일 이틀간 강원도 화천군 봉어섬 앞 북한강변과 화천호 카누경기장 등에서 제12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배 카누슬라럼 및 용선대회를 개최한다. 용선대회는 용의 모양으로 장식한 배에 12명의 선수가 탑승해 노를 저어 200m 직선거리 도달점에 가장 빨리 도착하는 경기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대한카누연맹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선수와 일반인 등 총 60팀 1000여 명이 참가한다. 경기는 일반부와 선수부로 나누어 치러지며 5일 예선, 6일 결선 경기가 열린다. 용선대회 선수부 우승팀 220만원, 일반부 우승팀 200만원, 카누슬라럼 남녀 우승자 각 30만원 등 총 2300만원의 상금이 걸려있다.

권기선 전 청장, 국חק기공협회 6대 회장에



권기선(52·사진) 전 부산경찰청장이 대한국חק기공협회 제6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대한국חק기공연합회는 “7월 30일 시도협회 선거인단의 투표로 진행된 회장선거에서 제6대 대한국חק기공협회 회장으로 권기선 후보자가 당선됐다”고 밝혔다. 신임 권기선 회장은 국립경찰대학교(2기)를 졸업한 이후 경북 영주경찰서장, 서울 서초경찰서장, 청와대 정부수석실 치안비서관실을 거쳐 경북경찰청장과 부산경찰청장을 역임했다. 권 회장은 “체육회 통합 후 첫 회장으로서 앞으로 국חק기공이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더욱 큰 역할을 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로 국חק기공이 뻗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경륜, 선수 경기력 향상 지원금 전달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창섭) 경륜경정사업본부는 7월27일 광명 경륜장에서 경륜 선수 경기력향상 지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경륜선수 경기력향상 지원금은 낙차경주, 실격경주 등을 최소화하고 고객들이 만족하는 경주를 제공하기 위해 경륜선수 경기력향상을 목적으로 경륜선수회에 전달됐다. 이명호 경륜경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경륜경정 임직원, 경륜선수회 임원 및 경륜선수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최근 경륜선수들의 자발적 노력으로 전년에 비해 낙차사고 33%, 실격경주 47%가 감소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륜선수들, 충북 음성 꽃동네 봉사활동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창섭) 경륜경정

사업본부는 7월23일 경륜선수회와 경륜경정사업본부가 함께 충북 음성군 꽃동네를 찾아 거동이 불편하거나 심신 장애가 있는 분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경륜선수 24명과 경륜경정사업본부 직원 3명 등 27명이 참여했다. 성인을 가져구, 물티슈, 바디워시 등 복지시설에서 필요한 5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하고 화단 만들기, 목욕시키기, 설거지, 청소 등과 함께 밀린 일거리를 도왔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경륜 선수 및 직원들은 “따뜻한 손길에 필요한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보람된 시간이었다. 우리 주변에 소외된 분들을 찾아 사랑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경륜인이 되겠다”고 했다.

편지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ROAD FC, 내달 10일 중국 허페이서 8경기



〈제8경기〉

아오르꺼러-명현만 ‘무제한급 전쟁’
제7경기 韓 정량급 미래 김민우 vs 티 챔피언 네즈 대결



9월10일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 이올림픽체육관에서 개최되는 ‘XIAOMI ROAD FC 033’의 매치업이 확정됐다. 1,2부로 나누어 총 8경기가 벌어진다. 종합격투기의 새물결(New Wave MMA)을 위해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권 시장공략에 전력투구하는 로드 FC가 중국에서 개최하는 4번째 행사다. 8경기를 키워드로 정리했다.

●제1경기 양원카이VS 장익환(-64kg 계약체중)

장익환은 무에타이 기술이 좋은 선수다. 양원카이는 전 경기에서 킥복싱 세계챔피언 출신 오두석에게 MMA 첫 승을 안겼다. 로드 FC30 데뷔전의 실패를 만회할지 궁금하다.

●제2경기 무랏 카잔 VS 아베 우코(라이트급)

무랏 카잔은 레슬링과 타격을 무기로 계속 압박을 구사한다. 아베는 경기 초반부터 물아붙이는 돌격형 파이터다. 경기는 1라운드를 넘기지 않고 화끈하게 끝날 전망이다.

●제3경기 허우전린 VS 심건오(무제한급)

중국과 한국의 레슬링 국가대표 출신의 자존심 대결이다. 허우전린은 로드 FC 032에서 광병인에 첫 승을 따냈다. 심건오는 레슬링에 복싱 기술을 결합했다.

●제4경기 장지안준 VS 김대성(-100kg 계약체중)

장지안준은 강한 신체능력과 경험을 갖춘 중국 격투기 1세대 파이터다. 김대성은 1년2개월 만에 케이지로 돌아왔다. 이번 대회에서 3연패의 고리를 끊어낸다는 목표가 있다.

●제5경기 홍영기 VS 우에사코 히로토(페더급)

홍영기는 태권도 국가대표 출신으로 태권킥이 장이다. 우에사코는 ‘하드 펀처’다. 상대방에게 정확하고 연속적으로 주먹을 꽂아 넣는 타격 스페셜리스트다. 킥은 펀치보다 3배 느리고 3배 강력하다고 한다. 펀치나 킥이나 그 것이 금급하다.

●제6경기 알라렐헬리 VS 장대영(밴텀급)

알라렐헬리는 로드 FC 데뷔 이후 3연승. 나이에 비해 경험이 풍부하다. 그레플링 기술이 좋고 물러서지 않는다. ‘주먹이 운다’에 출연했던 장대영은 부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선수다.

●제7경기 김민우 VS 네즈 유타(밴텀급)

네즈는 ‘슈토 재팬 챔피언’으로 프로 경기 28전 가운데 19승을 따냈다. 경험과 실력을 갖춘 강자 중의 강자다. 김민우는 대한민국 격투기 경량급의 미래다. 타이틀전을 강력하게 원하는 상위 랭커의 대결이다. 정상급 실력의 타격이 기대된다.

●제8경기 아오르꺼러 VS 명현만(무제한급)

아오르꺼러는 이전 경기에서 밥 샴을 39초 만에 눌러 중국 헤비급의 초신성이 됐다. 명현만은 대한민국 입식격투기 역사에 한 획을 그은 헤비급 최강자다. 사실상 무제한급 토너먼트 3, 4위전이다.

김종건 기자

전국초등교원, 100명 대상 체육연수

이론·실기 등 총 30시간 다양한 프로그램



대한체육회(김정형·강영종 회장)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대한체육회 태릉선수촌에서 전국 초등교원을 대상으로 ‘2016 전국초등교원체육연수’(사진)를 진행한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추천을 받은 초등학교 교원 100명이 참가한다. 이번 연수회는 체육 비전공자인 초등학교원의 체육과목 지도력을 향상시켜 실제 체육 수업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쉽고 재미있는 체육활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사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내용은 체육이론 6시간, 체육실기 24시간 등 총 30시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실제로 일선 초등학교 수업현장에서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실기수업에는 현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모습 견학과 전·현직 국가대표 지도자, 선수들이 수업 지도자로 참가해 수업의 효과를 높인다. 이론수업은 ‘바람직한 체육수업 이야기’, ‘체육수업과 또래집단’, ‘운동상에 대처방법’ 등 체육수업 방안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실기수업은 ‘힐링체육’, ‘표현활동’, ‘스파크 프로그램을 이용한 신체활동’, ‘핸드볼·체조·육상·배드민턴 지도법’ 등 실제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집중 구성했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연수회를 통해 초등교원의 체육 전문성을 함양하여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이 체육수업에 흥미를 느끼고 신체활동을 늘려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